

## 전국체전 ‘금빛스매싱’ ... 전북선수단 첫 메달

**배드민턴 원광대·전북은행 1위  
성심여고 동메달... 메달 3개 획득**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원광대·전북은행 배드민턴팀이 ‘금빛 스매싱’으로 전북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다.

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배드민턴 종목이 원광대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개인복식(남대부)에 출전한 서승재·김재환(원광대)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개인복식(여자일반부)에 출전한 공희용·윤민아(전북은행) 선수도 귀중한 금메달을 전북에 안겼다.

남여 동반 금메달에 성공한 것이다. 서승재·김재환은 결승전에서 강팀인 한국체대(서울)를 만나 1세트를 아쉽게 내줬다.

그러나 무서운 집중력과 투혼을 발휘, 2·3세트를 잇따라 승리하며 2대1로 역전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공희용·윤민아 선수도 역전승을 거두며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인천)와 맞붙은 결승전에서 이들 역시 1세트를 내준 뒤 2·3세트를 승리로 이끌었다.

앞서 개인복식에 나선 성심여고 배드민턴팀도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8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배드민턴 종목이 원광대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개인복식에 출전한 서승재·김재환(선수)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처럼 사전경기로 진행되는 배드민턴 종목에서 이날 하루에만 3개의 메달이 나와 종합성적3위를 목표로 내건 전북 선수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 선수단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사전경기의 승패가 중요하

다”며 “배드민턴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밝혀줄 성황봉송이 이날 전북도청 출발을 시작으로 시작했다. /정은성 기자

### 제1회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 성료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실버세대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와 당당한 노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1회 위풍당당 전국 실버가요제가 최근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후원한 이 행사에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회장, 박윤수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사장과 김양욱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회장, 이군형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주요 입상자로는 대상에 손동진(전주시)씨, 최우수상에 조영문(경남 산청군)씨, 우수상에 한영자(전주시)씨, 여현주(전주시)씨, 정윤덕(경북 구미시)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열린 대회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이군형 국제로타리3670지구 총재, 유자, 강금남, 임이레씨가 표창장을 받게 됐다.

/김재훈 기자

### 정읍 장명동 한마음 걷기대회 700명 참여

정읍시 장명동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명동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9일 정읍 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 이수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고 동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마음 걷기대회 기념식에서는 서봉수 체육회원과 정귀례 노인회원이 시장 감사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동민들은 물품기 제조를 시작으로 성황산을 경유하여 되돌아오는 2.5km 구간의 걷기대회를 마쳤다.

걷기대회 종료 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기념품과 간식이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되었으며, 다채로운 경품 추첨을 통해 동민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무주읍 이장 대상 봉사자 교육... 복지공동체 구현 앞장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8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에서 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장들을 대상으로 좋은 이웃들 사업을 소개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좋은이웃들 사업 관계자는 “이장들은 마을 주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소외된 분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발굴해 식생활, 주거, 교육, 의료 등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무주군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건의 지원·연계 실적을 보이며 복지 공동체 구현에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다. 좋은이웃들 봉사자는 연령, 성별, 직업의 제한 없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리산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운영

국립공원지리산본부사무소(소장 조점현)는 KDB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형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사회적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합동 모집해 진행되었으며, 지리산나눔협력센터에서 세밀화그리기, 동물모양 쿠키만들기 등의 힐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조점현 지리산국립공원본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복지 서비스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노암동, 동민의 날 한마당 개최

남원시 노암동(동장 황금숙) 주민자치발전협의회(회장 문봉근)는 오는 13일 노암초에서 제6회 노암동민의 날 화합 한마당 잔치를 열고 동민의 장 수상자들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식전행사에서는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기념행사, 동민의 장 및 감사패 수여, 장학금 전달, 대회사, 축사와 체육행사로 진행되고, 제기차기, 신발 던지기, 바터트리기가 진행되며 화합행사로느 각 마을별 노래자랑에 이어 초창가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민의 장 수상자는 ▲애랑장에 주민자치발전협의회 회장(2014~2015년)을 역임한 김재만씨 ▲봉사장에는 소외계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기여한 임종명씨가 선정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재만씨 임종명씨

<b>전주매일</b>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b>조봉성</b>		회장 <b>김옥길</b> 부회장 <b>김승곤</b>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6874	남원지사 68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64
효지사 010-8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82-3896	정읍지사 538-338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8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